

시론



남성욱

- 현)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북한의 군사협박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는 死文化되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한반도 주변 열강들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립된 것은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1965년 국교 수교 이후 최악의 한·일 관계를 시작으로 한·중, 한·러는 물론 한·미 관계 역시 불협화음의 연속이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고립무원 단계를 떠나 정치와 군사는 물론 경제위기로 비화하고 있다. 2019년 한반도 정세는 해법이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과 같다.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오직 평양과의 관계개선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2년 전 국정판단이 오늘날 위기의 서막이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대가가 만만찮다.

위기의 일차 진원지는 평양이다. 지난 5월 2차례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이제 한반도의 아침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미사일 발사는 횡수가 무의미할 정도로 상시화했다. 특히,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선부른 정무적 판단이 뒤섞이며 체계적인 실체 파악은커녕 북한의 사후 발표에 진단이 농락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2019년 북한 헌법은 전문에서 ‘무적의 군사강국’을 선언했고, 인민군 통수권을 명시한 제102조는 김정은에게 ‘무력총사령관’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붙였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별거 아니라는(so smaller) 트위터 면죄부를 준 이후 김정은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이번 주에 시작된 컴퓨터를 통한 지휘소(CPX) 훈련이라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방어만 하고 반격은 못 하니 학생들이 즐기는 배틀필드(Battle field) 게임보다 못하다. 그나마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름도 없어 ‘홍길동 훈련’이 돼버렸다.

무적의 군사강국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김정은은 지난달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 이미 김정은은 지난 4월 4000t급의 잠수함 건조를 지시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최대 3기 탑재가 가능한 최소 2000t 이상의 잠수함이 건조되거나 러시아에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에 의하여 제해권을 빼앗긴 북한군은 남포 앞바다의 초도는 물론 평안북도 철산군 앞 신미도 섬까지 포기하였다. 북한은 휴전이후 해군력을 증강하기 시작하여 1970년 초 들어 잠수함 부대를 창설하였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영국의 '제인 연감' 등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골프급과 로미오급을 포함해 40여 척의 퇴역 잠수함을 사들였다. 북한이 수직발사대 설치가 가능한 3500톤급 잠수함인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해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 현재 70여척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북한 해군력은 잠수함 전력이 열세인 남한 해군에 비대칭전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한 신형잠수함과 SLBM 개발

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SLBM 잠수함을 5년 내 실전배치를 완료할 경우 남한의 대응 및 요격 능력이 없다는 점은 치명적인 안보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부산 해운대와 제주도 중문 앞 해상에 북한 SLBM 잠수함이 수시로 출몰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남과 북이 지난해 9월 19일 요란한 축포와 함께 서명한 군사합의서 제1항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연일 드러내놓고 대남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를 사문화(死文化)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언은 평양을 향한 일편단심 사모곡인가? 평화경제론으로 대일(對日) 결사 항전을 독려한 다음날 아침,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을 자랑하는 미사일로 응답하는 주체가 평양지도부다. ‘맞은 짓을 하지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폭언과 미사일로 협박하는 당사자와, 경험으로 단숨에 극일(克日)하겠다는 주장은 우물에서 송냥 찾기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일장춘몽으로 치부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는 우적(友敵)과 실리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지난달 독도상공 방공식별구역(ADIZ)에 무단 침범한 중·리의 전투기는 구한말 경복궁에 난입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와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은 300mm 방사포를 비롯하여 수도권과 전방 지역을 겨냥한 5500여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거리 250km의 신형 방사포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 방사포의 위협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신형 방사포는 비무장지대

(DMZ) 부근에 배치될 경우 수도권과 주한미군 오산·평택기지,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는 물론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까지 그 사정권에 두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최신형 패트리엇 PAC-3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군 당국은 주장한다. 다만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급상승 등 요격 회피 기동이 가능한 만큼 실전 상황일 경우 무적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 결과를 점치기 어렵다. 북한군의 신형 400mm급 방사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유효한 요격수단이 없다. 수평 변칙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우며 미사일급 정확도로 동시에 수십에서 수백발의 사격이 가능하다. 만약에 북한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신형 400mm 미사일을 동시에 섞어 발사한다면 피해는 예측 불허다.

2017년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분쟁 가능성을 낮추려면 미군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기자 질문에 “페렌바크(T.R. Fehrenbach)의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 2019, 최필영·윤상용 옮김」 을 읽어봐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미국을 되돌아보는 미국관 징비록(懲毖錄)인 이 책은 마지막 807쪽에서 “한국전쟁의 교훈은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한반도의 38도선에서 포성이 멈춘 지 10년 만인 1963년 이 책을 발간한 저자는 전차대대 중대장에 이어 중령 계급장을 달고 한반도의 전선을 누볐다. 그는 세계 양대 세력이 충돌하여 200만 명이 사망한 한국전쟁은 힘을 시험한 전쟁이 아니라 의

지를 시험한 전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서방은 공산권 지도부의 야망과 의도를 오관했고 공산권 지도부는 서방의 대응을 판단하는데 실수했다. 이 책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망각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상기시켜준다고 고든 설리번(Gordon Sullivan) 전 미 육군참모총장은 지적하였다.

북한은 재래기 무기 중에서 방사포, 잠수함, 전차, 전투기 및 화생방 전력에서 남한보다 우세하며 남한이 보유하지 못한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남한이 GDP 대비 약 2.5%를 국방비에 사용하고 북한의 국방예산 비율은 약 25%다. 국방비 절대 액수는 남한이 크지만 북한은 인건비보다는 무기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여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진화중이다. 각종 비대칭 무기와 핵무기로 무장하는 북한은 헌법 전문의 표현대로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남한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평양의 선의만을 기대하는 지나친 향북(向北)정책은 이제 미사일 도발에 의하여 수명이 다했다. 잘못된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얼마 전 방문했던 중국 칭화대 정문 표석과 캠퍼스에 붙어 있는 ‘자강불식 후덕재물(自疆不息 厚德載物)’이라는 슬로건은 풍전등화 상태인 대한민국의 안보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다. “스스로 쉽 없이 강하게 만들고 덕을 많이 쌓아야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다. ‘자강불식 후력재안(厚力載安)’이다. “스스로 쉽 없이 강하게 만들고 힘을 많이 쌓아야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창작 문장으로 무더위 속 답답한 마음을 달래 본다.